

메시지 6

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와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 아래 살며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

성경: 고후 1:9, 골 1:18, 2:19, 빌 1:19-21상, 3:10, 고전 6:17, 엡 4:15-16

- I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유기체이다 — 골 1:18, 요 11:25, 행 2:24, 계 1:18, 2:8, 빌 3:10.
- A.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, 그 죽임당한 자리에서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— 고후 1:9.
 - B.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옛 창조물 안에서 우리는 몸이 아니다.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받아들인 새 창조물 안에서 몸이다 — 엡 1:19-23.
 - C.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, 우리의 존재 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부분이 높여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— 롬 6:4, 6, 8:2, 11, 갈 2:20.
 - D.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,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되고, 이것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— 롬 6:6, 8:11, 12:4-5.
 - 1.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인도 직분은 반드시 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우고 아몬드 열매를 맺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한다 — 민 17:8.
 - 2.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어떠한은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.
- II. 그리스도는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고, 개인적으로 모든 믿는 이들의 유일한 머리이시다.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직접적인 머리이시다 — 골 1:18, 고전 11:3.
- A. 머리는 권위의 문제이다.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몸 안에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다 — 골 1:18, 마 28:18.
 - 1.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— 엡 4:15.
 - 2. 몸과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지시하는 권위는 머리이신 분께 있다.
 - B. 우리가 머리의 권위 아래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가 몸의 생활을 아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— 고전 11:3, 엡 4:15-16, 골 1:18, 3:4.
 - 1. 몸은 오직 하나의 머리만을 가질 수 있으며, 오직 하나의 머리에만 복종할 수 있다 — 골 1:18.
 - 2. 그리스도는 유일한 머리이시며,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복종하면서,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를 존중하고 증언해야 한다 — 엡 1:22-23, 마 23:8-12.
 - 3. 몸의 지체들은 머리를 붙잡는 것을 통해 함께 잘 맞추어져 몸의 생활을 할 수 있다. 머리와 우리의 관계가 다른 지체들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 — 엡 4:15-16, 고전 12:18, 27.
- III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-사람들이 되었고,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,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에 의해 사는,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무리의 사람들이다 — 갈 2:20, 빌 1:19-21상, 3:10.

- A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-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인데, 이들은 참된 사람들이지만 그들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, 그들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한다 — 빌 1:19-21상.
- B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고 신성이 인성과 연합됨으로써,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며 하나님으로 함께 조성된, 모든 하나님-사람들이 사는 생활이다 — 요 14:20.
- C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— 빌 3:10.
- D. 그리스도의 몸은 연합된 영 안에 있기 때문에,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는 것은 연합된 영 안에 있으며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— 롬 8:4, 12:4-5, 고전 6:17, 12:12-13, 27.
 - 1.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 곧 몸 안에서 살고 행하고 움직이는 것이며, 몸의 실재 안에 있는 것이다 — 롬 8:4, 12:4-5.
 - 2.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이 사실상 그리고 실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다 — 고전 6:17, 12:12-13, 27.

IV.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— 엡 4:15.

- A.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기까지,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— 엡 4:15, 13.
- B.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‘머리’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에 따른 우리의 생명의 성장이 반드시 머리 아래 있는 몸 안의 지체들의 성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.
- C. 우리는 모든 일에서, 즉 크든 작든 각각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— 엡 4:15.
 - 1.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.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.
 - 2.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때,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것이다.
- D.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이다. 몸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, 즉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 있다 — 골 2:19.

V. 몸의 성장이 몸의 건축이다 — 엡 4:16.

- A.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이며, 그 결과는 바로 몸이 스스로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— 엡 3:17상.
 - 1.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가시고 성도들 안에 사실 때,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신다 — 골 3:10-11.
 - 2.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심으로 자라며,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된다 — 골 1:18, 2:19, 엡 4:15-16.
- B.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— 엡 4:16.
 - 1.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데,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다.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며,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동료 지체들을 사랑한다 — 요일 4:7-8, 11, 16, 19.
 - 2.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이다.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 안으로 들어갈 때,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, 그 결과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— 엡 5:25.
 - 3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려야 한다 — 엡 4:12, 16.